

제공일자	2014. 6. 25(수)	담당자	김석영 연구위원(금융전략실)
홍보담당	변철성 수석담당역(3775-9115)	연락처	3775-9029
			총2매

제목 :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고연령 보험시장 진입 필요

보험연구원(원장: 강호)은 『인구구조 변화가 보험계약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음.

우리나라는 평균수명 연장과 출산율 저하로 고령인구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여 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으며, 이는 보험계약자 연령 구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생명보험 주가입자인 30~40대 인구 감소로 인한 기존 보험수요 약화와 동시에 고령인구 증가로 고령인구 중심의 신규시장 확대 기회를 제공할 것임.

우리나라 평균기대수명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현재 남자 77.6세, 여자 84.5세이며,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또한 기대수명 연장뿐만 아니라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항아리형에서 역삼각형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음. 그러나 현재 보험상품 개발은 대부분 30~40대를 주 소비층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령층을 위한 보험상품은 일부 소개되고 있는 상황에 그치고 있음. 고령층 대상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통계자료가 충분하지 못하여 요율의 불안정성이 높으나 이에 대한 충분한 안전할증이 가능하지 않아 상품개발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임.

향후 인구구조 변화와 이에 따른 보험계약자 연령별 구조 변화를 추정해본 결과 총인구 감소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로 보험회사는 지속적인 신계약 창출에 어려움이 예상됨. 인구구조 변화로 30~40대 인구가 감소하고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증가하여 신계약은 2035년까지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75세 이상 고연령대는 거의 모든 종

목에서 가입률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인구 증가에 반해 상품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제도와 상품개발 전략으로는 미래에도 보험가입자 구조가 30~40대 위주의 구조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이는 고연령층 인구가 증가하는 인구구조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임. 인구구조 변화는 보험산업 흐름을 바꾸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됨. 향후 고령화되는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할 때 보험산업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고연령층 시장 확대는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보험회사들은 고연령층 니즈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고연령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보험회사는 지속적인 경험통계 축적을 통하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그러나 보험회사들은 고연령층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한 경험이 없었으며 보유계약이 고연령층에 도달한 경우도 적어 충분한 경험통계가 축적되지 못함으로써 요율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통계부족으로 인한 리스크와 향후 변동성 리스크를 위한 안전할증의 자율적 결정이 시급하며, 고연령층을 위한 상품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련 감독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첨부 : CEO Report 『인구구조 변화가 보험계약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끝.